

# 진안만의 청년정책 '우수상' 쾌거 '무주군 바로 알기탐방' 실시

### 군, 2년 연속 전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수상

진안군은 전북도가 개최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에서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전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도에서 9건, 시·군에서 23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돼 각측을 벌였다.

1차 서면심사, 2차 도민 온라인 심사 및 전문가 심사에 이어 지난 28일 발표한 최종 발표심사에서 진안군이 시·군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진안군 사례는 농촌활력과 청년일자탐에서 추진 중인 'I m 진안청년(C.H.A.N.G.E 진안청년 생활백서)' 구축이다.



진안군은 전북도가 개최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청년을 추진했다.

또한 청년들이 청년 정책들을 알기 쉽게 실과소별로 추진하는 청년 지원 사업을 주제별로 취합 분류한 진안청년 생활백서 매뉴얼 구축 및 홈페이지 및 SNS 4개 채널 운영을 통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군에서 적극행정 사례가 2년 연속 전라북도 경진대

회에 수상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전 공직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민관의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해 군민들 어려움에 먼저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내에 적극행정 문화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민선8기 군정 발전 위한 의회 소통 강화

### 진안군,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진안군은 성공적인 민선8기 군정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협력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진안군 산악초타운에서 군 간부공무



진안군은 성공적인 민선8기 군정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협력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원 35명이 모여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소장이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갈등 예방 및 상생협력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강의로 시작을 알렸다.

강의에서는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정치환경 변화에 대응한 의회 협력 업무 추진전략, 군과 지방의회의 갈등의 원인, 지방의회 자치 의정 지원실무 등 다양한 사례들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 참가자들의 공감을 적극적인 공감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군정 운영의 파트너인 군 의회와 발전적인 협력 관계 체계를 갖춰 군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상호협력의 중요하다"며 "간부공무원들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민선8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보건의료원, 공중보건조사 21명 대상

무주군보건의료원 소속 공중보건조사 대상으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무주군 바로 알기탐방'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탐방은 공중보건조사원이 복무기간 동안 무주군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켜 책임감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조사 21명이 2개조로 나뉘어 실시됐다.

이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태권도원을 비롯해 머루와인동굴, 적상산사고와 적상산 등을 차례로 탐방하고 보건교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번 탐방에 참여한 공중보건조사원은 "무주군민의 자긍심이 담긴 관광지를 둘러보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돼

너무 보람 있고 감동이 깊었다"며 "더욱 친숙한 모습으로 환자들을 대하고 지역 의료와 건강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보건행정과장은 "무주군 공중보건조사원이 이번 무주군 바로알기 탐방을 통해 근무 분위기 형성에 큰 보탬이 됐을 것이다"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욱 열심히 근무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7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집중 단속

무주군이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표시 구역에서 일반 자동차가 충전행위를 방해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대상 충전 방해 행위는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축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다. 단속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한 민원 단속과 정기적인 현장 단속이 병행 진행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경관계획 재정비 추진 주민공청회 개최

진안군은 29일 군청 강당에서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진안군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군 경관이 지향하는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경관 기본구상, 경관 기본계획 등 보완이 필요한 경관계획을 구체화하고, 각 가이 드라인 체계 마련 및 위원회 심의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군은 기 수립된 경관계획이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경관법에 의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경관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된 것으로 진안군에서 설치·관리되는 공공시설물 등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아라기술공사 김희태 이사 의 용역 추진 과정 보고와 경관계획(안) 발표, 전문가 지정토론, 의견수렴 등도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유)어반플랜 서정주 대표를 좌장으로, 지역전문가 (주)살구 이안규 대표, 우석대학교 정관영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열린 토론을 펼치고, 참석한 주민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 접수

장수군이 오는 7월 8일까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전 거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민들에게 일정 기간 살 수 있도록 제공해 농촌의 특성과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은 1개소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개소 당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7년 간 귀농귀촌인에게 임대하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 8일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차주영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고 마을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며 "많은 분들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경사로 설치로

### 이동약자 불편 해소 앞장

진안군은 소규모 시설 경사로 설치를 추진하며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나서고 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소규모 공공이용 시설 문턱 낮추기 사업'은 사업은 이동약자들이 높은 단차와 계단으로 이루어진 상가 출입구를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했다.

특히 미용실, 음식점 등 주민들의 이용은 많은 생활 밀착형 시설이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 편의시설 설치되지 않은 300㎡미만의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시작해 4개소에 경사로를 설치한데 이어 올하는 담쟁이 카페 등 총 7개소에 이동 약자들의 불편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실시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